

기름값 내려간다…광주 휘발유 6주 연속 하락

1월 첫째주 휘발유 ⓧ 당 평균 1천702원
경유 5주새 159원 내려 1천500원대 진입
전남 4주 연속 ↓ …“내주도 하락 전망”

광주지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각각 6주와 5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전남 역시 같은 흐름을 보이며 4주 연속 유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주 광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 당 평균 판매 가격은 1천702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1천7127원)보다 10원 낮아진 수치다.

광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11월 넷째주 ⓧ 당 1천727원을 기록한 이후 6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경유 가격 역시 뚜렷한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지역 경유는 지난해 12월 첫째 주 ⓧ 당 1천6489원에서 꾸준히 하락해 올해 1월 첫째 주에는 1천597.5원까지 떨어졌다. 5주 동안 총 158.6 원이 하락하며 다시 1천500원대에 진입했다.

전남지역 기름값도 4주 연속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지역 휘발유 ⓧ 당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 해 12월 둘째 주 1천751.9원에서 올해 1월 첫째 주 1천735.9원으로 낮아지며 4주 동안 16원 하락했다.

같은 기간 경유 역시 ⓧ 당 판매 가격이 1천667.9원에서 1천639.9원으로 28원 내려갔다.

전국 평균 유가도 하락 추세다. 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 당 9.1원 내린 1천720.7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주 대비 10.1원 하락한 1

천779.5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구는 11.1원 내린 1

천087.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상표별로는 SK에너지 주유소가 ⓧ 당 평균 1천729.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알뜰주유소는 1천699.7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유의 전국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3.3 원 떨어진 ⓧ 당 1천619.8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지난 주말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구금 소식으로 일시 상승했으나 이후 해당 사안이 원유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다시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26달러 내린 58.6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와 동일한 71.7달러였으며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1달러 오른 79.8 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연합뉴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5주 연속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주(4~8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 당 9.1원 내린 1천720.7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3.3원 하락한 1천619.8원을 기록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개미들 지난주 삼성전자 3조 쓸어 담았다

‘빚투’ 역대 최대…SK하이닉스는 팔아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고공행진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주 삼성전자를 3조원 가까이 쓸어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빚투’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9일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2조9천15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간 기준 지난 2024년 9월 둘째주(9~13일·2조9천530억원) 이후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일별로 보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달서 연속 ‘사자’를 이어갔다.

이번주 개인이 SK하이닉스는 1천670억원 순매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빚투’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거래소에 따르면 8일 기준 삼성전자의 신용

잔고 금액은 1조9천77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변제를 마치지 않은 금액으로, 이 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 신용잔고는 지난달 29일 이후 이달 8일까지 7거래일 연속 늘었다.

최근 인공지능(AI) 투자 증가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가 산재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 8일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공개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20조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08.2% 증가, 7년여만에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록을 경신했다.

삼성전자가 실적을 공개한 당일(8일) 개인은 삼성전자를 9천850억원 쓸어 담았다.

증권가에서는 D램, 낸드 등 메모리 가격 상승

이 이어지면서 올해도 삼성전자의 호실적이 예상된다며 목표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8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평균 목표주가는 15만4천423원으로 직전(13만6천769 원) 대비 1만7천654원 상향됐다.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20만원까지 상향하기도 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올해는 D램, 낸드 가격이 작년 대비 각각 87%, 57% 상승 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삼성전자 메모리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며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145조1천470억원으로 기준 추정치 대비 18%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최근 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반도체 기업 대비 가격 매력이 크다는 분석

이나온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1206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317 26 27 42 /보너스 23		
1등	1,868,807,000	6개숫자일치
2등	63,135,37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3등	1,403,430	5개숫자일치
4등	50,000	4개숫자일치
5등	5,000	3개숫자일치

‘위약금 면제’ KT 21만명 빠져나가

KT의 위약금 면제 조치 기간 다른 통신사로 옮겨간 가입자 규모가 앞선 SK텔레콤 면제 기간 규모를 넘어섰다.

11일통신업계에 따르면 KT 위약금 면제가 시작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KT에서 빠져나간 가입자 수는 21만6천203명으로 집계 됐다.

이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열흘 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며 16만6천여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규모를 넘어선 수치다.

토요일인 10일 통신사 이동에 나선 이용자들이 늘며 일일 기준 KT 이탈 가입자 수는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선 3만3천305명을 기록했다.

10일 하루 총 번호 이동 수는 6만3천651건으로, KT 이탈자 가운데 2만2천193명이 SK텔레콤으로, 8천77명이 LG유플러스로 갔다. 알뜰폰으로 간 가입자 수는 3천35명이다. /연합뉴스

메모리값 폭등에 IT기기 출인상 공포

AI 탓 D램·낸드값 2배 ↑

제조원가 비중 20% 육박

통신비 부담 가중 우려도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스마트폰과 PC 등 주요 IT 기기 가격이 줄줄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AI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생산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범용 메모리 공급이 빠듯해진 영향으로, 필수 가전 구입비에 통신비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AI 서버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저 가형 D램 생산은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워디아는 모바일 D램(LPDDR R) 제품 가격이 지난해 초 대비 70% 이상 상승 했고, 스마트폰용 낸드플래시 가격도 약 100%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다른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스마트폰 제조 원가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 10~15% 수준에서 최근 20%를 넘어섰다”며 “AI 기능 확대 추세로 인해 메모리 용량을 줄이기도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도 올해 2분기까지 스마트폰용 메모리 가격이 40% 추가 상승해 원제품 제조 원가가 8~10%가량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비용 부담은 제조사 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4분기 사상 최대인 20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MX·네트워크 부문의 영업이익은 약 2조원 수준으로 전 분기 대비 급감한 것으로 추정된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 대표이사(사장)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拉斯베이거스 기자회견에서 “메모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우려 요인”이라며 “제품 가격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출시될 갤럭시 S26 시리즈의 출고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소비자 저항을 고려할 때 일반형은 10만원 안팎, 울트라 모델은 15만원内外에서 인상 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쟁사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7 프로 모델 가격을 인상했고, 샤오미와 비보 등 중국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나섰거나 검토 중이다.

PC와 태블릿 시장 역시 메모리 가격 상승의 영향을 피할 수 없다.

델은 최근 비즈니스용 노트북 가격을 최대 30% 인상했고, 에이수스도 최근 가격 조정에 나섰다.

국내 시장에서는 LG전자가 노트북 ‘그램’ 16 인치 모델 가격을 전년 대비 소폭 인상했으며, 삼성전자는 노트북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실내파크골프장 이용안내 (전국80개) 유명구장

● 18홀 (1회/이용료8천원) ● 10회권/6만 ● 20회권/10만

1:1 교육	★왕초보 레슨반	기본자세, 공치기, 경기방법	1주완성/6만
	★구장 실전체험	80개 스크린구장/경기체험	초보,자격취득과정
	자격증 취득반	파크골프,지도사2급	▶ 2급/28만
		파크골프,지도사1급	▶ 1급/35만
		파크골프,심판/강사1급	▶ 심판/10만

■ 자격취득반 / 수시접수

▶자격취득까지 추가비용 일체없음
(응시료+교재비+이론교육(영상)+실내실습(자격취득시까지 무료))

* 자격취득 즉시 스크린파크장 무료이용권 10장 제공 / 합격축하 기념

티샷·퍼팅샷·어프로치샷/
개인연습/이용자 10분 무료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